http://dx.doi.org/10.16874/jslckc.2023..67.006

K-영상콘텐츠의 한중 신조어 번역전략에 대한 고찰

- K-드라마 〈그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위약시*

목 차

1. 들어가기
2. 영상콘텐츠에서의 신조어와 소통중심번역
  1) K-영상콘텐츠의 신조어 특징과 유형
  2) 뉴마크의 소통중심 기반 신조어 번역
3. 신조어의 사례분석과 번역전략
  1) 출발어(SL) 중심의 번역전략
    (1) 직접차용(전이/음역)
    (2) 문자 그대로 번역
  2) 도착어(TL) 중심의 번역전략
    (1) 문화적 등가(대체)
    (2) 풀어쓰기
    (3) 부가설명
4. 나가기

국문초록

본고는 뉴마크의 소통중심번역(Communicative Translation) 관점에서 한국 대중문화콘텐츠 K-Drama <그녀의 사생활>에 나타나는 신조어 한중번역 양상을 분석하고 K-영상콘텐츠의 한중 신조어 번역전략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조어의 '대중성(사회성)', '시간적 제약(時效性)', '문화커뮤니케이션 기능'이라는 특징들을 감안해서 신조어 개념을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시간적 제약을 받는, 새로 만들어진 어휘 단위 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기존의 어휘 단위'로 정의하였다. 본고는

* 단국대학교 대학원 중국어 통번역학과 박사 수료

www.kci.go.kr

소통중심번역을 SST(Source Screen Text, 원천영상언어 텍스트)의 정확한 맥락적 의미를 TL 시청자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용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실제 K-영상콘텐츠 번역 사례에 적용하게 될 소통중심번역에 기반한 한중 신조어 번역 전략은 크게 2가지, 그 세부 번역방식을 7가지로 구분하였다. 소통중심의 번역방법은 '소통'이 전제되기에 TST(Target Screen Text, 목표영상언어 텍스트)가 TL문화권의 시청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재창조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키워드: K-영상콘텐츠, 신조어, 신조어 특징, 신조어 유형, 뉴마크(Newmark), 소통중심번역(Communicative Translation), 한중번역, 번역전략

1. 들어가기

Pilar Orero는 영상번역(Audiovisual translation)이 하나의 포괄성을 지닌 새로운 분야라고 주장한다. 산업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이 우리 일상을 변화시킴에 따라 영상번역은 번역학에서도 가장 역동성을 띠는 분야가 되었다[1]. 21세기의 미디어 환경에서 대중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은 새로

1) Pilar Orero는 '영상번역'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영상번역 용어의 난맥상은 이 분야의 명칭 자체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난다. '제약 번역(Constrained Translation)'에서 '영화 번역(Film Tranlation)', '영화/TV 번역(Film and TV Translation)', '스크린 번역(Screen Translation)', '미디어 번역(Media Translation)', '영화커뮤니케이션(Film Communication)', '필름 번역(Traduccion Filmica)', '영상번역(Audiovisual Translation)', '(멀티)미디어 번역(Multi Media Translation)'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Pilar Orero는 영상번역(Audiovisual translation)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는데 '스크린 번역'이라는 용어는 극장이나 라디오까지는 아우를 수 없을 것이고 '멀티미디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IT분야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상번역'은 어떠한 종류나 형식의 매체든 해당 매체용으로 제작되는 혹은 제작 후 방영/상영 과정에 필요한 모든 번역(혹은 다중 기호 전송)을 포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디어 접근성이라는 새로운 개념, 즉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시각 장애인용 화면 해설 제공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 Pilar Orero, 김윤정·권유진 역, 『영상 번역 연구』, 서울: 동인, 2018, 7-16쪽.

www.kci.go.kr

운 경제 생태계를 주도하는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K-Culture를 대표하는 장르는 K-Drama, K-Movie, K-Pop, K-Beauty, K-Food, K-Fish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K-Pop이 미치는 영향과 범위가 가장 크다 하겠다.

본고는 뉴마크의 번역이론[2]을 토대로 한국 대중문화 K-Drama <그녀의 사생활>에 나타나는 신조어 한중번역 양상을 분석하고 K-영상콘텐츠의 한중 신조어 번역전략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신조어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창조물로서 뉴마크는 이를 '새로 만들어진 어휘 단위' 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기존의 어휘 단위'로 정의한다.[3] 본고는 여기에 '대중성'과 '시간적 제약'이라는 특징을 추가해서 신조어를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시간적 제약을 받는, 새로 만들어진 어휘 단위 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기존의 어휘 단위'로 정의하고자 한다.[4]

국내의 신조어에 대한 번역학적 접근으로는 주로 신조어의 생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번역양상을 통한 특징 연구[5]와 번역평가[6] 등이 그 예라 하겠다. 또한 한국 언론에서 나타나는 '바링허우세대'[7] 관련 신조어 번역과

---

2) '신조어 번역 준거 틀(A frame of reference for the translation of neologisms)'과 'V-다이어그램(V-diagram)'. Newmark, Peter,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London: Prentice Hall, 1988, p.45-53; p.140-150.

3) Newmark, Peter(1988), p.140.

4) 신조어를 단일한 낱말뿐만 아니라 '단어 간의 결합물로 보는 시각'에 입각하여 본고도 신조어의 범위를 어휘 단어와 더불어 구(phrase) 형식까지 확장시킬 것이다. Rets, I., "Studying the new vocabulary of the Dutch language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Philological sciences. Theoretical and practical questions*, 6, 2014, p.149-152.

5) 채선, 「신조어와 유행어를 통한 한중-중한 의미론적 번역」,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원식, 「독일어 신조어의 번역: 합성어와 성구어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12권2호, 2009, 79-102쪽.

6) 이경아, 「성분분석을 통한 신조어 번역평가」,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7) 황지연, 「한국 언론의 '바링허우세대' 관련 신조어 번역: ~族와 ~奴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16권3호, 2012, 235-254쪽. '바링허우세대', 중국어 '八零后(80년 이후)'의 음차역으로 중국에서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다. 이들은 중국이 개혁, 개방

www.kci.go.kr

인터넷시대 신조어 번역능력[8]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 이 외에, 최근 2022년 한중번역 실제와 분석 연구에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등장하는 '인터넷 용어·신조어' 번역에는 '대체', '치환', '등가' 등의 번역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9]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 영상물의 한중번역에 관한 신조어 연구는 양적, 질적 모두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는 한국 대중문화, 특히 K-영상콘텐츠에서 다량 생산되는 신조어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류의 대표주자격인 K-Drama <그녀의 사생활>에 나타나는 신조어를 대상으로 그 자막번역의 양상을 통해 신조어 한중 번역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K-영상콘텐츠 신조어 번역이라는 문화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문화 간 소통을 위한 측면에서 출발하여 뉴마크의 소통중심번역에 기반한 한중 신조어 번역전략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수많은 K-Drama 중에서 <그녀의 사생활>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대중문화산업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K-Pop문화, 팬덤 문화와 관련된 신조어가 이 드라마에 상대적으로 많이 담겨 있어 K-Culture를 반영한 신조어의 번역양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텍스트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신조어의 사례분석과 번역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신조어와 소통중심번역에 관한 이론에 접근해보기로 하겠다.

에 나선 이후 태어난 세대이다. 그 당시의 중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날로 부강해지는 동시에, 사회·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만큼 '바링허우세대' 사이에 생겨난 신조어들이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8) 황정, 「인터넷시대 신조어 번역능력에 대한 고찰: 소설 <너를 위한 내 세계(爲了你我願意熱愛整個世界 한국어 번역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9) 심보경·崔燕燕, 「한중번역 실제와 분석: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북한어 어휘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90집, 2022, 133-163쪽.

www.kci.go.kr

2. 영상콘텐츠에서의 신조어와 소통중심번역

1) K-영상콘텐츠의 신조어 특징과 유형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신조어를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시간적 제약을 받는, 새로 만들어진 어휘 단위 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기존의 어휘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신조어의 공통적 특징은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데, K-영상콘텐츠의 신조어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영상콘텐츠 신조어의 사회성, 혹은 대중성이다. 신조어(新造語)의 사전적 의미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나 기존에 있던 말이라도 새로운 의미가 부여한 말”로, ‘신어(新語)’라고도 한다. 이는 언어의 특징 중 ‘사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시대와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말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K-영상콘텐츠의 신조어가 ‘시간적 제약(時效性)’을 받는다는 특징이다. 이는 신조어는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우이다. 국어교육학 사전에 따르면 신조어는 “새로 생겨나서 그다지 시일이 경과되지 않은 새말”로서 신조어의 생성 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신조어는 일정 기간 사용되면서 소멸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다가 일반 어휘가 되기에 생명주기가 짧다.

셋째, K-영상콘텐츠 신조어의 ‘문화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신조어는 언어활동을 풍부하게 하고, 삶의 방식이나 사유의 지평을 넓혀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10] 즉 단어 의미 그대로 ‘문화적’이라는 것이다. K-영상콘텐츠인 K-Drama, K-Variety, K-Movie, K-Music video,

10) 김다은, 『발칙한 신조어와 문화 현상』, 서울: 작가, 2006, 6-9쪽.

www.kci.go.kr

K-Documentary 등에서 나타나는 신조어들이 K-Culture를 반영함으로써 문화 간 소통의 매개로서 문화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지닌다.

이와 같은 신조어의 개념과 특징에 기반해서 이제 신조어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뉴마크는 '신조어 번역 준거 틀'에 신조어 유형을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기존의 어휘(existing lexical items with new senses)'와 '새로운 형태/새로 만들어진 어휘(new forms)'로 크게 분류하고 조어방식에 따라 다시 12가지로 세분화하였다.[11] 현대 한국어의 조어법에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12] 신조어의 유형적 분류에 있어서 조어 방식별로 신조어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약어로 분류할 수 있다.[13] 이를 결합하여 본고에서는 신조어를 크게 '새로운 의미생성에 의한 신조어'와 '새로운 형태생성에 의한 신조어'로 분류하겠다. 또한 후자는 다시 '단일 신조어', '합성 신조어', '파생 신조어', '축약형 신조어'로 하위분류하겠다.

---

11) 전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기존의 어휘'는 단어(words)와 연어(collocations) 이 2가지로, '새로운 형태/새로 만들어진 어휘'는 새로 창조된 어휘(new coinage), 파생어(derived words, including blends 혼합형 포함), 줄임말(abbreviations), 연어(collocations), 고유명사 차용(eponyms) , 구(phrasal words), 옮긴말(transferred words), 두문자어(acronyms), 의사신조어(preudo-neologisms), 국제어(internationalisms) 10가지로 구분된다. Newmark, Peter(1988), p.140-150.

12) 남기심·고영금·임동훈,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9, 191쪽.

13) 리양은 신조어의 조어방식에 의한 분류에 있어서 신조어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약어로 분류하고 분석한 바 있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일어로 신조어의 예시는 '까이다', '므흣', '스설리', '엣지', '댄디(dandy)'로 들 수 있으나 아주 드물다. 파생 신조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다시 접두 파생어와 접미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대면', '안티팬', '훈남', '얼굴맹', '소개팅' 등이 있다. 합성 신조어는 실질형태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신조어를 뜻하며 '졸업백수', '인증샷', '그린칼라' 등을 들 수 있다. 축약형 신조어는 단어의 길이를 줄이고자 일부분을 생략하는 조어 방식으로 만든 신조어로 예를 들면 '치맥', '낼(내일)', '네비(네비게이션)' 등이 있다. 리양, 「한·중 신조어의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5-74쪽.

www.kci.go.kr

2) 뉴마크의 소통중심 기반 신조어 번역

신조어 번역은 문화커뮤니케이션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사회·문화적 차이를 좁히기 위한 과정이다. K-영상콘텐츠의 자막을 재생산하는 문화의 전환과정에서 원천영상언어 텍스트(Source Screen Text, 이하 'SST' 혼용) 문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혹은 목표영상언어 텍스트(Target Screen Text, 이하 'TST' 혼용) 문화에 있는가 하는 처리 방식으로 번역 텍스트의 문화 차이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뉴마크의 번역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V-다이어그램에는 번역의 방향성을 'SL-지향(emphasis)'과 'TL-지향(emphasis)'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양극에 각각 SL과 TL을 배치하고 그 사이에 정도성에 따른 번역방법 8가지를 세분하여 나열하였다.[14] 그의 V-다이어그램에서 소통중심번역은 TL문화 지향적이면서도 원천텍스트와의 거리도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본고가 소통중심번역을 원문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소통의 기능까지 갖춘 번역방식으로 판단하게 된 근거인 것이다.

K-영상콘텐츠에 있어서 소통중심번역은 SST의 정확한 맥락적 의미를 TL 시청자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용어로 번역하는 방식이다. SST의 신조어에 대해 개인적이면서 그 의미가 주는 미묘한 차이를 추구하는 의미중심번역[15]과 달리, 소통중심번역은 사회적이면서도 SL의 메시지와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소통'이 전제되기에 신조어를 반드시 새로운 단어로

14) 'SL-지향'측은 'SL중심의 번역' 방법으로서, 단어 대 단어 번역(Word-for-word translation), 직역(Literal translation), 충실한 번역(Faithful translation), 의미중심번역(Semantic translation)이 있다. 'TL-지향'측은 'TL중심의 번역' 방법으로서, 번안(Adaptation), 의역(Free translation), 관용적 표현(Idiomatic translation), 소통중심번역(Communicative translation)이 있다. Newmark, Peter(1988), p.45-48.

15) 원천텍스트의 심미적 가치를 고려하여 출발어 중심 번역에서 가장 타협적이고 탄력적인 방식이다. 김순영·이선영, 「영한 및 한영 소설 제목의 번역 양상 고찰」, 『통역과 번역』 제17권3호, 2009, 34쪽.

www.kci.go.kr

번역해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소통이 가능하다면 신조어라 할지라도 기존의 어휘를 통한 번역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통중심번역은 V-다이어그램에서 TL문화 지향적이면서도 원천텍스트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에 소통중심번역이 V-다이어그램에서 차지하는 스펙트럼을 원천텍스트와의 거리에 근거하여 다시 'SL중심'과 'TL중심'의 두 축으로 나누기로 한다. 본고에서 실제 K-영상콘텐츠 번역 사례에 적용하게 될 소통중심번역에 기반한 한중 신조어 번역전략의 세부적인 번역방법은 다음과 같다.

a. 출발어(SL) 중심의 번역전략
  (1) 직접차용(전이/음역)
  (2) 문자 그대로 번역(Literal translation)
b. 도착어(TL) 중심의 번역전략
  (3) 문화적 등가(대체)
  (4) 풀어쓰기
  (5) 부가설명

다음 절에서 위에 제시한 번역전략에 따라 <그녀의 사생활>의 실제 신조어 한중번역 사례에 적용해 볼 것이다.

3. 신조어의 사례분석과 번역전략

K-Drama <그녀의 사생활>은 2019년 4월 10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 tvN에 상영된 16부작이다. 직장에서는 완벽한 큐레이터지만 알고 보면 아이돌 덕후인 여자 주인공 성덕미가 까칠한 상사 라이언을 만나며 벌어지는 본격 덕질 로맨스이다. 원작소설 <누나팬닷컴(부제: 그녀의 사생활)>은 네이버 시리즈에 2007년 4월 출간된 후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평점을 받았다.

www.kci.go.kr

K-Drama <그녀의 사생활>은 K-Pop 문화, 팬덤 문화와 관련된 신조어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소통중심번역에 기반한 신조어 번역전략은 SL문화 지향적인 SL중심의 번역전략과 TL문화 지향적인 TL중심의 번역전략으로 나누었다. 각 전략별의 세부적 하위범주를 살펴보면 전자는 '직접차용(전이/음역)'과 '문자 그대로 번역'으로 구분하였고, 후자는 '문화적 등가(대체)', '풀어쓰기', '부가설명'으로 세분하였다. 이제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그녀의 사생활>에서 추출한 신조어[16]의 한중번역 사례들을 통해 그 방법론을 적용해보도록 하겠다. <그녀의 사생활>의 팬자막[17]인 TST의 좋은 번역 사례에 대해서는 그것이 소통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SST의 맥락적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은 번역 사례의 경우는 그 번

16) 본고의 분석대상 신조어는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수집 원칙을 참조하여 신조어 판단 기준으로 삼아 선정했다. (1)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거나, 기존의 말을 새로운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 생성된 어휘가 신조어로 판단된다. (2) 새로운 개념, 직종, 첨단 학문 등이 도입되면서,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전문어적인 성격을 띤 새로운 어휘가 신조어로 판단된다. (3) 최근 신조어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융합, 축약, 탈락 현상에 의한 축약어가 신조어로 판단된다. (4)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와 형태는 같지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어휘도 신조어로 판단된다. (5) 국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어휘가 신조어로 판단된다. (6) 단어뿐만 아니라 연구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는 구들도 신어로 판단된다.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신어 수집 자료(2016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25-26쪽.

17) 팬자막(Fansub, Fan-subtitled의 줄임말)은 팬들에 의해 번역되고 제작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말한다. 2015년 1월 21일 중국에서 '한외령'으로 칭하는 외화 검열 정책의 정식 시행으로 인하여 외국 문화콘텐츠의 수입이 큰 타격을 입었고 YOUKU, IQIYI, TENCENT VIDEO를 비롯한 동영상 플랫폼으로 새로운 한국 드라마를 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중국 국가광전총국의 엄격한 심사로 인한 콘텐츠 내용의 의도적인 편집과 삭제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팬들은 스스로 콘텐츠 번역 및 공유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게 되었고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생산해 내면서 자막번역의 주력군이 되었다. 이로부터 중국 내 시청자들은 과거의 한국 드라마 시청 매개체에서 벗어나 비공식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팬자막을 통하여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다. 원림림, 「팬자막과 공식자막 번역 양상의 비교 연구: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71집, 2021, 183쪽.

www.kci.go.kr

역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1) 출발어(SL) 중심의 번역전략

(1) 직접차용(전이/음역)

본고에서는 직접차용[18]을 '전이(Transference)'와 '음역'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전이'는 SST의 어휘를 인용부호(“ ”, ‘ ’)를 사용하여 그대로 이식하는 번역방법이다. TST의 글자 수 제약이라는 텍스트 특성상 한중 신조어 자막번역에서는 SST의 신조어가 외래어인 경우 보통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 원어 그대로 TST에서 전이된다. '음역'은 SST의 신조어를 음역하는 방식으로서, 보통 '음차역'으로도 불린다. SL문화권의 발음을 가져와서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의 '직접차용-음역'이라는 번역방법을 사용한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예문(1)
SST: 덕후 심은 데 덕후가 나지 머글이 나오겠어요?
TST1: 种下迷妹 收獲迷妹 不然還指望生出麻瓜嗎
TST2: 种下迷妹 收獲迷妹 不然還指望生出路人嗎 (연구자 번역)

예문(1) SST의 '머글'은 '새로운 의미생성에 의한 신조어'로서 영어 'Muggle'의 발음 그대로를 한글로 음역 표기한 것이다. '머글(Muggle)'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마법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총칭이다. 이제 팬덤 문화 용

18) 비교문체론의 번역처리방식의 한 범주로서 차용(emprunt)은 SL의 어휘소를 문자와 내용 모두 변화 없이 그대로 TL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은 나아가 TL의 정서법, 음(소리)과 같게 함으로써 동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차용어'라 한다. 라데군디스 슈톨체, 임우영 외 역, 『번역이론 입문 – 번역학 궤뚫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1, 67쪽.

www.kci.go.kr

어로 덕후들 사이에서는 덕후가 아닌 일반 사람을 뜻한 것으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본고에서는 '머글'과 같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기존의 어휘를 '새로운 의미생성에 의한 신조어'로 분류하였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중역본에서 영어 'Muggle'을 그대로 음역하여 '麻瓜'라고 번역했다. 신조어가 외래어일 경우 해당 신조어의 원어가 TL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번역어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TST1을 보면 '머글'의 번역어는 그의 영어 원어 'Muggle'이 중국에서 통용되는 번역어인 '麻瓜'로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麻瓜'라는 용어는 마법 능력이 없는 보통 인간을 이르나 신조어로서의 새로운 의미가 담겨있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TST2처럼 '머글'의 번역어로 '路人'을 제안해본다. 그 이유는 중국 팬들 사이에서 이미 덕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路人'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TL문화권 팬덤 용어 '路人'으로 번역하는 방식은 소통중심번역의 관점에서 중국 시청자에게는 영상콘텐츠의 발화 맥락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표현이라 볼 수 있다.

⑵ 문자 그대로 번역

문자 그대로 번역(Literal translation)[19]은 SL의 구성요소를 TL문화권에서 그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충실하게 번역하는 방식으로서, '직통 번역(through-translation)'[20]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소통중심 번역으로서의 문자 그대로 번역은 SST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소통

19) 'Literal translation'은 낱말에 충실한 번역으로서의 '직역'에 상응하는데, 본고에서는 라데군디스 슈톨체의 정의에 기반하여 '문자 그대로 번역'으로 사용하겠다. 라데군디스 슈톨체(2011), 75쪽.

20) 언어 쌍 중심의 번역학에 대한 탐구는 뉴마크에 의해 영어권에서 이루어졌다. 뉴마크가 발전시킨 '번역처리과정'에서 '직통 번역(through-translation)'이라는 개념을 다루었다. 이는 일반적인 구(phrase) 형식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모사(calque)로서의 의존번역이다. 예를 들면 'la Communauté Européenne'를 'the European Community'로 번역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라데군디스 슈톨체(2011), 75-76쪽.

www.kci.go.kr

중심번역에서 강조하는 TST에서의 의미전달 효과가 잘 이루어진 번역방식이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번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번역방식을 가리키는지 다음의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문(2)
SST: 덕미야, 너 지금 덕질하러 가는 거 아니야. 일하러 가는 거야. 덕업일치 위대한 순간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덕업일치!
TST: 德美啊 你現在不是去追星啊 你是去工作 追星和職業達成一致的偉大瞬間就在眼前了 追業一致啊

예문(2)의 '덕업일치'는 특정 분야에 몰두해 마니아 이상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otaku(御宅)'에서 온 '덕'과 한자 '業', '一致'로 결합된 합성 신조어이다. '덕'이라는 용어는 한자어 '德'로서의 사전적 의미는 "이상적인 세계나 가치관을 세우려는 의지, 혹은 타인에게 관대하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뜻한다. 신조어 '덕'은 '오덕후'의 가운데 글자에서 유래한, 오타쿠 계열 전반의 의미를 포괄하는 형태소이다. '덕'이라는 형태소에 의해 파생된 신조어의 예로 '덕후', '덕질', '입덕', '탈덕'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여기서 예문(2)의 '덕업일치'는 자기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직업으로 삼음을 의미한다.

예문(2)를 보면, '덕업일치'를 TS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追星和職業達成一致'로 해석하였고 두 번째는 '追業一致'로 번역되었다. 전자는 '덕업일치'의 뜻을 풀어서 다시 해석한 것이고 후자는 '문자 그대로 번역'이라는 SL중심의 번역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덕업일치'라는 개념은 중국에서 '追星和職業達成一致(덕질과 직업이 일치하는 뜻)'의 축약어인 '追業一致'로 통용된다. 이에 TST에서 채택한 번역어 '追業一致'는 영상콘텐츠를 이해하는 데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SST에서 의미하는 새롭게 출현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아주 적합한 번역방식이라 하겠다.

www.kci.go.kr

<그녀의 사생활>의 신조어들을 '문자 그대로 번역'이라는 방식으로 번역한 다른 사례들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문자 그대로 번역' 방식을 통한 신조어 번역 사례

'문자 그대로 번역' 방식을 통한 신조어 번역 사례			
한국어 SST	프로세스	중국어 자막 TST	대안으로서의 번역어
현타	한자 現+영어 time '현실 자각 타임'의 축약어	现打	认清现实
사생팬	한자 私生+영어 fan	TST1: 私生饭 TST2: 私生粉丝	
응원봉	한자 應援+한자 棒	应援棒	
성지순례[21]	한자 聖地巡禮	圣地巡礼	打卡
먹방	고유어 먹+한자 放 '먹는 방송'의 축약어	吃播	
이선좌	고유어 이+한자 選座 '이미 선택된 좌석'의 축약어	已选座	

2) 도착어(TL) 중심의 번역전략

(1) 문화적 등가(대체)

이 글의 분류체계에서 TL중심 번역전략의 두 번째 범주는 '문화적 등가(대체)'이다. 이는 SL의 신조어를 TL문화권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TL 친화적인 일반용어(Generic term)로 대체하여 문화적 등가(Cultural equivalent)를 이루는 번역방식이다.

21) 종교에서 유래하였고 일반적인 의미는 성지를 순례하는 것, 혹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다. 2016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의 흥행으로부터 종교적 의미를 제외하고, 뮤직 비디오의 촬영지, 영화나 드라마, 소설, 애니메이션 등의 무대가 된 장소를 찾아다니는 여행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www.kci.go.kr

예문(3)
SST: 덕통사고 다발구간입니다.
TST1: 這里是“入坑事故”多發區域
TST2: 這里是“路轉粉事故”多發區域 (연구자 번역)

예문(3)에서 ‘덕통사고’는 일본어 ‘otaku(御宅)’의 ‘덕’과 한자 ‘交通事故’로 조합된 합성 신조어이다. 국립국어원 2014년 신조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뜻밖에 일어난 교통사고처럼, 어떤 일을 계기로 갑자기 어떤 대상에 병적으로 집중하거나 집착하게 됨”을 의미한다. 위의 TST1에서는 ‘덕통사고’를 ‘入坑事故’로 번역하였다. 중국에서 ‘入坑’은 ‘입덕하다’는 의미가 있어 팬덤 문화 용어로 대중적으로 쓰인다. 하지만 ‘入坑事故’라는 합성어는 SL의 문화적 함의를 표현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며 중국 시청자에게 다소 어색한 번역어라 하겠다. 이러한 판단 하에 TST2와 같이 ‘덕통사고’의 번역어를 ‘路轉粉事故’로 제안해 본다.

TL용어 ‘路轉粉’은 ‘路人轉變爲粉絲’의 축약어로 어떤 대상에 전혀 끌리지 않다가 팬이 된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TST2의 ‘路轉粉事故’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분야의 팬이나 마니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통중심번역의 관점에서 ‘문화적 등가(대체)’라는 번역방식은 SL문화와 TL문화 간의 전이와 커뮤니케이션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SL의 문화적 특징이 담긴 신조어 ‘덕통사고’를 TL문화권에 수용할 때는 TL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路轉粉事故’로 대체한 것은 문화적 등가가 이루어진 번역과정이라 본다.

이상으로 ‘문화적 등가(대체)’라는 번역방식이 적용된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보았다. 이 외에도 <그녀의 사생활>의 중국어 팬자막에서 추출된 ‘문화적 등가(대체)’라는 번역방식을 통한 번역어들을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www.kci.go.kr

<표 2> '문화적 등가(대체)' 방식을 통한 신조어 번역 사례

'문화적 등가(대체)' 방식을 통한 신조어 번역 사례			
한국어 SST	프로세스	중국어 자막 TST	대안으로서의 번역어
덕밍아웃[22]	일본어 otaku(御宅)의 '덕'+영어 coming-out	TST1: 掉皮 TST2: 公开追星	
입덕	한자 入+일본어 otaku(御宅)의 '덕'	TST1: 入坑 TST2: 被圈粉	
탈덕	한자 脫+일본어 otaku(御宅)의 '덕'	脱饭	
덕후	'오덕후'의 축약어 어원: 일본어 otaku(御宅)	TST1: 迷妹 TST2: 粉丝	
덕질	일본어 otaku(御宅)의 '덕'+고유어 접미사 '-질'	TST1: 追星 TST2: 当迷妹 TST3: 当迷弟 TST4: 粉丝行为	
혼술	혼자 마시는 술/ 혼자서 술을 마심	独酌	独自喝酒/ 一个人喝酒
조공[23]	한자 朝貢	朝贡	助攻
~님		~大大	
짤	'움짤'의 축약어 움직이는 사진	动图	
홈마[24]	영어 homepage+ 영어 master	站姐	
떡밥	낚시 미끼 -> 연예인 관련 콘텐츠	TST1: 鱼饵 TST2: 口粮	物料[25]
아이돌 굿즈	영어 idol+영어 goods	偶像周边	
레어템	영어 rare+영어 item	稀有物品	
최애	한자 最愛	本命	

22) 덕후 성향을 주위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정성스런 마음으로 준비 한 선물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반면, '역조공'은 연예인이 팬에게 선물을 주는 일 또는 그 선물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24)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의 운영자.
25) 새로운 사진이나 스케줄 등의 연예인 관련 정보가 나오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www.kci.go.kr

⑵ 풀어쓰기

풀어쓰기는 출발 문화권의 어휘가 갖는 의미를 번역자가 맥락에 따라 완벽하게 이해하여 목표 문화권의 익숙한 표현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방식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풀어쓰기'라는 번역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예문(4)
SST: 뭐야? 닭발? 완전 취향 저격이네. 근데 물어볼 게 뭐야?
TST1: 這是什么 鷄爪嗎 狙擊到我的取向了 話說你要問我什么
TST2: 這是什么 鷄爪嗎 眞的是取向狙擊啊 話說你要問我什么
TST3: 這是什么 鷄爪嗎 眞的是正中下怀啊 話說你要問我什么
TST4: 這是什么 鷄爪嗎 正合我意啊 話說你要問我什么
TST5: 這是什么 鷄爪嗎 眞是我的菜啊 話說你要問我什么
(TST2-TST5: SST와의 거리에 따른 연구자 번역)

위의 예문(4)에서 '취향 저격'은 한자 '趣向'과 '狙擊'으로 만들어진 합성 신조어이다. 이는 상대방의 취향을 잘 알아 그에 알맞게 행동함을 지칭하는 용어로 2014년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등재되었다. 일반적으로 '취저'라는 축약어로 쓰이기도 한다. 예문(4)의 TST1에서 '취향 저격'은 '狙擊到我的取向了'로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취향 저격'의 의미를 풀어서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TL시청자들로 하여금 SST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번역이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TST1과 같은 소통중심번역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풀어쓰기'라는 번역방식은 유효했다고 본다. 본고는 중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 중에 한국어 '취향 저격'의 의미와 유사한 단어들이 있음을 포착했다. 이에 TST1의 좋은 번역어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로 위의 TST2, TST3, TST4, TST5와 같이 제안해 본다.

위의 TST2부터 TST5까지 나열된 예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중국에는 SL '취향 저격'과 비슷한 표현인 '取向狙擊', '正中下怀', '正合我意', '我的菜'

www.kci.go.kr

가 존재한다. 이에 본고는 위의 네 가지 표현을 SST와의 거리를 감안해서 그 정도성에 따라 소통중심의 번역어로 제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TST2에서 SL중심의 번역전략인 '문자 그대로 번역'의 방식으로 '취향 저격'을 '取向狙擊'로 번역하였다. 이는 출발어의 원뜻, 즉 SST 표현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그 정도성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 하겠다. 그 뒤로 이어지는 TST3, TST4, TST5의 '正中下怀', '正合我意', '我的菜' 등은 상대적으로 SST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정도성이 약화되지만, 역으로 도착어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고가 제안한 표현들은 SST 거리에서의 편차를 보이면서 점차 도착어 중심으로 향하면서 문화적 등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들 번역어들이 다 TL중심의 '문화적 등가(대체)'라는 번역방식을 사용하였다고 본다.

지금까지 TL지향적인 '풀어쓰기'라는 번역방식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TL시청자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SL신조어의 의미를 풀어쓰는 방식으로 번역한 <그녀의 사생활>의 중국어 자막을 다음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풀어쓰기' 방식을 통한 신조어 번역 사례

"풀어쓰기" 방식을 통한 신조어 번역 사례			
한국어 SST	프로세스	중국어 자막 TST	대안으로서의 번역어
친구 찬스	한자 親舊+ 영어 chance	问了你的朋友	拜托朋友帮忙
엄마 찬스	고유어 엄마+ 영어 chance	有妈妈帮我	询问妈妈
출사	한자 出寫 사진사가 출장 가서 사진을 찍음 -> 아이돌의 사진을 직기 위한 목적으로 나들이를 함	出差拍照	追行程拍照
성덕	한자 成+ 일본어 otaku(御宅)의 '덕' '성공한 덕후'의 축약어	成功的粉丝	

www.kci.go.kr

⑶ 부가설명

‘부가설명(Translation couplet)’[26]은 SL의 신조어를 직접차용한 후 번역자가 바로 번역문 뒤에 괄호나 역주를 사용하여 부연설명을 하거나 번역 텍스트에서 관련 정보를 삽입하는 TL중심의 번역방식이다. 이는 TL의 번역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난해한 용어로 인해 TL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번역방식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부가설명’이라는 번역방식이 적용된 번역의 실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예문(5)
SST: 그, 요즘에 멀리 안 가고 가까운 호텔에서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 호캉스라고... 아, 진짜 재미있었는데...
TST: 最近很流行不出遠門 在附近的酒店度假 那个叫hocance
(注：是將“hotel”和“vacance”合成的新造詞)
有這么个詞

위의 예문(5)에서 ‘호캉스’는 영어 ‘hocance’와 프랑스어 ‘vacance’의 합성 신조어로서 “호텔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보내는 휴가”를 일컫는다. ‘호캉스’라는 용어의 원어인 ‘hocance’는 직접차용 후 역주 처리를 하지 않으면 TL시청자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서 TST에서는 SST의 ‘호캉스’를 ‘hocance’로 번역한 후 번역자가 역주를 달아 ‘hocance’에 대해 부연 설명하였다. 즉 역주 ‘(注：是將“hotel”和“vacance”合成的新造詞)’ 를 통해 ‘hocance’라는 TL시청자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 더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6) ‘Translation couplet’는 뉴마크가 제시한 ‘번역처리과정’의 하나인데, 본고에서는 그의 개념을 라데군디스 슈톨체의 정의에 기반하여 ‘부가설명’으로 사용하겠다. 라데군디스 슈톨체(2011), 75쪽.

www.kci.go.kr

<그녀의 사생활>의 신조어 한중 번역양상을 고찰해 본 결과, 역주를 사용하여 부가 설명하는 번역방식을 사용한 사례는 예문(5)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자막번역의 제약 중 하나인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국내외 대부분의 국가에는 영상번역 연구와 번역 현장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고, 흔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time and space constraints)'으로 정의된다.[27] 국내 같은 경우, 공간의 제약에 대한 규범은 대부분 한 화면에 최대 두 줄, 한 줄에 최대 16자 이내라는 영상번역가의 기준[28]에 포함된다. 이에 <그녀의 사생활>의 중국어 자막에서 TL중심 '부가설명'이라는 번역방식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TST의 공간적 제약이라는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나가기

지금까지 한국 대중문화콘텐츠인 영상물에서 나타나는 신조어 한중 번역양상과 번역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K-Drama <그녀의 사생활>에서의 신조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번역방법을 고찰해 보았다. K-영상콘텐츠에서의 한중 신조어 번역양상을 통해 신조어 한중 번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더 좋은 번역을 위한 번역전략을 탐색해보고자 노력하였다.

기존의 신조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신조어 개념을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시간적 제약을 받는, 새로 만들어진 어휘 단위 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기존의 어휘 단위'로 정의하였다. K-영상콘텐츠의 신조어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영상콘텐츠 신

27) 최수연, 「자막번역 현장의 변화: 공간의 제약을 어긴 자막의 수용 사례 분석」, 『인문사회21』 제10권6호, 2019, 1503쪽.
28) 함혜숙, 『영상번역가로 산다는 것: 프리랜서에서 1인 기업가로』, 서울: 더라인북스, 2017, 146-152쪽.

www.kci.go.kr

조어의 사회성, 혹은 대중성이다. 둘째, K-영상콘텐츠의 신조어가 '시간적 제약(時效性)'을 받는다는 특징이다. 셋째, K-영상콘텐츠 신조어의 '문화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

이와 같은 신조어의 개념과 특징에 기반해서 신조어의 유형을 크게 '새로운 의미생성에 의한 신조어'와 '새로운 형태생성에 의한 신조어'로 분류하였다. 또한 후자는 다시 '단일 신조어', '합성 신조어', '파생 신조어', '축약형 신조어'로 하위분류하였다. 본고의 이러한 유형분류체계의 기준은 뉴마크의 '신조어 번역 준거 틀'과 현대 한국어의 조어법의 특징에 근거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K-영상콘텐츠 <그녀의 사생활>에서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신조어에 있어서 뉴마크의 소통중심번역에 기반한 한중 신조어 번역전략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소통중심번역을 SST의 정확한 맥락적 의미를 TL 시청자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용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실제 K-영상콘텐츠 번역 사례에 적용하게 될 소통중심번역에 기반한 한중 신조어 번역전략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였다. '출발어(SL) 중심의 번역전략', '도착어(TL) 중심의 번역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그 세부 번역방식을 보면, 출발어(SL) 중심의 번역전략에는 '직접차용(전이/음역)'과 '문자 그대로 번역'이 있다. 도착어(TL) 중심의 번역전략에는 '문화적 등가(대체)', '풀어쓰기', '부가설명'을 포함시켰다.

본고가 제안한 소통중심번역이 갖는 의의로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소통중심의 번역방법은 대체로 영상콘텐츠 발화 맥락에서 드러나지 않는 정보들을 TST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로는 TST가 TL문화권의 시청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재창조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점이다. SST의 신조어에 대해 개인적이면서 그 의미가 주는 미묘한 차이를 추구하는 의미중심번역과 달리, 소통중심번역은 사회적이면서도 SL의 메시지와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그 과정의 중심에는 '소통'이 전제되기에 기존의 어휘를 활용한 번역도 충분히 의

www.kci.go.kr

미 있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주로 K-영상콘텐츠 팬덤 문화 관련 분야의 신조어를 중심으로, 그것도 드라마 한 편을 분석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신조어 전반을 아우른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고 다원화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www.kci.go.kr

參考文獻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신어 수집 자료(2012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신어 수집 자료(2013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신어 수집 자료(2014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신어 수집 자료(2015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신어 수집 자료(2016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신어 수집 자료(2017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신어 수집 자료(2018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신어 수집 자료(2019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김다은, 『발칙한 신조어와 문화 현상』, 서울: 작가, 2006.
김순영·이선영, 「영한 및 한영 소설 제목의 번역 양상 고찰」,『통역과 번역』제17권3호, 2009.
김원식, 「독일어 신조어의 번역: 합성어와 성구어를 중심으로」,『통번역학연구』제12권2호, 2009.
강완장·위군·이현송, 「중국 내 한국 콘텐츠 팬서브(Fansub)공동체에 관한 연구」,『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2017.
남기심·고영금·임동훈,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2019.
라데군디스 슈톨체, 임우영 외 역, 『번역이론 입문 – 번역학 꿰뚫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1.
리양, 「한·중 신조어의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박효진, 「한국 현대 단편소설 작중인물 이름의 영어번역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성승은, 「영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성인대상 번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심보경·崔燕燕, 「한중번역 실제와 분석: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북한어 어휘를 중심으로」,『어문론집』제90집, 2022.
원림림, 「팬자막과 공식자막 번역 양상의 비교 연구: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www.kci.go.kr

중심으로」,『한중인문학연구』제71집, 2021.
이경아, 「성분분석을 통한 신조어 번역평가」,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채선, 「신조어와 유행어를 통한 한중-중한 의미론적 번역」,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최수연, 「자막번역 현장의 변화: 공간의 제약을 어긴 자막의 수용 사례 분석」,『 인문사회21』제10권6호, 2019.
함혜숙, 『영상번역가로 산다는 것: 프리랜서에서 1인 기업가로』, 서울: 더라인북스, 2017.
황정, 「인터넷시대 신조어 번역능력에 대한 고찰: 소설 <너를 위한 내 세계(為了你我願意熱愛整個世界 한국어 번역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황지연, 「한국 언론의 '바링허우세대' 관련 신조어 번역: ~族와 ~奴를 중심으로」,『통번역학연구』제16권3호, 2012.
Newmark, Peter,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London: Prentice Hall, 1988.
Pilar Orero, 김윤정·권유진 역,『영상 번역 연구』, 서울: 동인, 2018.
Rets, I., "Studying the new vocabulary of the Dutch language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Philological sciences. Theoretical and practical questions*, 6, 2014.
贾文波, 『应用翻译功能论』, 北京: 中国对外翻译出版有限公司, 2012.
谭载喜, 『西方翻译简史』, 北京: 商务印书馆, 2004.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Chinese Neologism Translation Strategies for K-Video Contents

- Focus on K-Drama *Her Private Life*

Wei Nuosh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n-Chinese translation aspects of neologism appearing in a Korean popular culture content, K-Drama *Her Private Life* and examine the Korean-Chinese neologism translation strategy of K-video contents from the perspective of Newmark's communicative transl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rity (sociality)', 'temporal constraint', and 'cultural communication function' of neologism, the concept of neologism is defined as 'a newly coined word' and 'an existing lexical unit given new meaning' which are widely used by the public and subject to temporal constraints. In this study, communicative translation is defined as a translation method in which the precise contextual meaning of source screen text (SST) into contents and terms acceptable to TL viewers. The Korean-Chinese neologism translation strategy based on communicative translation, which is actually applied to K-video content translation cases, is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and seven detailed translation methods. Communicative translation whose premise is 'communication' is meaningful in that it is implemented in a way that target screen text(TST) is recreated so that viewers in the TL culture can easily accept it.

Key words : K-video contents, Neologism, Characteristics of neologism, Types of neologism, Newmark, Communicative Translation, Korean-Chinese translation, Translation strategy

투 고 일 : 2023. 1. 10. / 심 사 일 : 2023. 1. 15.~ 2023. 2. 15. / 게재확정일 : 2023. 2. 20.

www.kci.go.kr